

널뛰는 환율·원자재값...광주·전남 수출단가 영향 높다

광주·전남 수출 비중 석유화학·철강·반도체·자동차 순 석유화학 단가 지난해 8월 하락 전환...철강도 '마이너스'

급변하는 국제 경기와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세 속에서 광주·전남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수출단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가효과와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인구 과장과 강재훈 조사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수출 동향 및 대외 경제여건에 따른 영향 점검' 조사연구보고서에 담겼다. 한은은 이번 연구에서 수출단가(수출액/수출중량)를 이용한 수출액 증가율의 물량·단가 효과를 분석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지역 수출금액은 광주 166억달러·전남 459억달러 등 625억달

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7.8%)의 2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수출품목별 비중은 석유화학(23.7%), 철강(11.4%), 반도체(10.3%), 자동차(7.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이 같은 수출 증가세에 대해 "석유정제, 화학, 철강 등은 원자재 비용의 가격전가율이 높은 산업"이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효과에 의해 수출 변동성이 크고 가격 상승기에 수출을 과대평가할 우려도 높다"고 언급했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자 수출비중(34.4%)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은 석유제품·석유화학 및 철강 등 중간재 수출비중(90.4%)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품목별 수출비중은 반도체(38.7%)→자동차(29.8%)→가전(6.6%)→타이어(3.8%) 순으로 높았고, 전남은 석유제품(38.4%)→석유화학(32.1%)→철강(15.4%)→선박(6.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품목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광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2005년부터 지난 2021년 중에는 자동차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은 측은 지난 2021년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던 석유화학·철강 부문이 지난해 들어서는 수출단가 변동 영향으로 모두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 석유화학 수출은 2021년(53.0%) 큰 폭 증가에서 2022년(-5.1%) 감소로 전환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던 2021년의 경우 수출 가격조정 결과로 단가효과(50.4%포인트)가 크게 나타난 반면, 지난해 들어서는 수요가 줄고 국제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그 효과(-0.4%포인트)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 석유화학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방역조치로 인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관련 수입수요도 줄었기 때문으로 한은 측은 풀이했다. 지난해 기존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은 중국이 32.8%로 가장 많았고, 미국 7.4%, 인도 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광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단가는 2021년(30.5%)에 크게 늘었고 2022년(44.1%)에도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지만, IT수요 둔화, 중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물량효과는 부진(2021년 12.8%포인트→2022년 -1.1%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과장은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기업에 대

상호한 올해 상반기 제삼기 전망에서 응답기업의 36.9%가 전년동기대비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금융여건의 악화, 지정학적 위험 요소 등 다양한 수출 방해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역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큰 편"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물류 차질이 생길 때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등과 협력하는 해결 구조를 하기 위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출단가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및 수출 비중을 늘리고, 석유화학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중국 등 기존 수출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기업 10곳 중 9곳 "협력사 ESG 평가"

인센티브·페널티 주는 곳도 있어...중기 "ESG 관련 지원 늘려야"

대기업의 87%가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평가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ESG와 관련한 자금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30곳 중 협력사 ESG 평가를 한 기업은 26곳(87%)였다. 이는 2019년 조사 때보다 30%(9개사)나 증가한 것으로, 대기업 10곳 중 9곳 정도가 협력사의 ESG 평가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30곳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평가 부서 설문, 협력사 108곳 대상 설문을 취합한 것이다.

이밖에 평가를 수행 중인 대기업 중 18곳(69%)은 그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구매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준 곳이 13곳, 페널티를 준 곳이 16곳으로 둘 다 준 곳도 있다. 인센티브만 부여한 대기업은 3곳, 페널티만 준 경우도 5곳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는 기업은 14곳이었다. 향후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협력사 58%는 대기업의 ESG 평가 강도가 점차 세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들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 관련 자금(19%), 교육(10%)을 꼽았다.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이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42%나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평가가 확산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 지원이 수반돼야 함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설협회 전남도회, 사회복지 기부금 4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소속 회원사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4000만원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10일 영광군청을 방문해 저소득 세대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여수와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영광, 목포 등 4개 권역의 지자체를 방문해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회원사로 구성된

'사회공헌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모금된 사회공헌기금이다.

공후식 회장은 "우리 대한건설 전남도회 소속 회원사가 기부한 성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회 사회공헌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여년간 약 3억5000여만원을 지역사회에 후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온라인 통장 발행·토끼띠 고객 금리 더 드려요"

광주은행 '토닥토닥 적금' 출시

광주은행이 토끼띠 해에 태어났거나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를 더 주는 적금 상품을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KJB 토닥토닥 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금액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 적립하거나 자유 적립식이다.

1년제와 2년제, 3년제 가입할 수 있다.

1년제를 기준으로 금리는 연 3.3(자유)~3.5%(정액)이다.

토끼띠 해에 태어난 고객이라면 연 0.5%포인트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영업점에서 가입할 때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 0.3%포인트를 더 받는다. 상품 서비스 안내에 동의할 때 0.2%포인트, 첫 가입일 경우 0.5%포인트 등을 더하면 최고 연 1.5%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오는 3월31일까지 가입한 뒤 만기 해지하면 연 0.5%포인트 추가 제공된다. 3년제 정액적립식 가입의 경우 최고 연 5.7%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적금은 판매 계좌 수에 제한이 있어 1년제는 2만좌, 2년제와 3년제는 합해서 5000좌까지 판매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새 적금 출시를 기념



광주은행 고병일(가운데) 은행장이 1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토끼띠 해를 기념해 출시한 'KJB 토닥토닥 적금' 1호 가입자로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해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1호 가입에 나섰다.

고 은행장은 "고객 자산 관리와 종자돈 마련을 돕

고자 새해 처음으로 내놓은 적금"이라며 "고객 수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CS 기업활용 무료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의, 30곳 선착순

광주상공회의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NCS를 도입을 통해 직무 중심의 인사 배치와 객관적인 성과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인재채용 시스템과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세스 구축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NCS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2인이 기업에 방문해 해당 기업 관계자와 함

께 기업 현황과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개발, 역량 기반의 인사체계 구축, 채용·교육훈련 방안 등을 설계하게 된다.

해당 컨설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올해 30개사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협력사업본부(062-350-589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인공 지능, 수소공급 등 미래 유망 분야가 포함된 NCS를 신규로 개발해 고시했다"며 "급속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NCS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월 미 기준금리 '빅스텝' 없고 0.25% 인상될 듯"

연준 인사들 전망

지난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준보다 작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연준 인사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지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효과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으며,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에 이어 지난해 0.5%포인트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을 4.50%로 끌어올린 상태다.

그는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향후 나올 정보에 대응하고 그러한 정책 시차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0.25%포인트나 0.5%포인트 인상 모두 논의 대상이고 0.5%포인트 인상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서, 오는 12일 발표될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PI 세부 항목 가운데 임금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주거비·식품·에너지 제외 서비스물가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준금리를 최종적으로 5% 위로 끌어올린 뒤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연 5.5%에 달했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말 3%대로 내리고 2025년경에야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둔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표가 개선될 경우 0.25%포인트 인상을 더 강력히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고 전했다.

레피얼 보스피 애들랜다 연은 총재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월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올 경우 0.25%포인트 인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 빚썸코리아·빚썸홀딩스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빚썸'을 운영하는 빚썸코리아와 빚썸홀딩스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빚썸코리아·빚썸홀딩스를 찾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에도 빚썸코리아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대 소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빚썸코리아, 빚썸홀딩스와 관계사의 국내외 거래 등을 살펴보고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빚썸 실소유주이자 관계사 회장 사건 핵심 인

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중현 씨와 강씨의 동생 강지연 씨와 관련해 탈세 정황이 없는지도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중현 씨는 최근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도 최근 횡령 혐의를 받는 강 씨 남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1.31(+1.12)
▼ 코스닥	696.05(-5.16)
▲ 금리(국고채 3년)	3.556(-0.021)
▲ 환율(USD)	1244.70(+1.20)